

생명력있는 예배와 설교에 관한 추구¹⁾

Werner Kramer

(스위스 쾰리히 대학교 교수, 실천신학)

강 용 원

(고신대학 부교수, 실천신학)

목	차
1. 서론 : 유럽에서의 설교와 설교학의 상황	4. 오늘의 설교와 예배의 갱신 (1) 원리적 설교학
2. 칼 바르트의 유산 : 변증법적 신학에 있어서의 "본문연관 설교"(ca. 1920-1960)	(2) 자료적 설교학 (3) 형식적 설교학
3. 슬라이에르마허 (1768-1834)의 유산 : "예배연관 설교"	5. 결론

1. 서론 : 유럽에서의 설교와 설교학의 상황

1) 종교개혁시대 이후 설교와 예배는 신교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의 핵심부분이며, 혹은 쾰리히의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배와 설교는 "교회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만을 보여주는 서술들입니다.

*본고는 1991년 9월 25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된 것으로 독일 신학을 기초로한 설교가 예배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강의체 문장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1. Der vorliegende Aufsatz stellt den Text einer Gastvorlesung dar, die ich in etwas gekurzter Form am 24. September 1991 am Kosin College, am 25. September 1991 am Korean Seminary in Pusan (Korea) gehalten habe. Ich widme ihn Prof. Dr. theol. Kang Yong Won in dankbarer Erinnerung an die Zusammenarbeit in den Jahren 1985-1989, als er in Zurich (Schweiz) unter meiner Aufsicht seine Doktordissertation erarbeitete.

또한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며, 설교는 자주 허공 속으로 메아리 칩니다. 사람들은 자주 예배의 위기와 설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초래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밖으로부터 온 사회적 이유이며,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온 교회적 이유인데, 여기에는 목사 자신에 의해서 야기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이유를 살펴봅시다. 모든 산업화된 세계에서 증가하는 개인주의는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방, 자율성, 그리고 성숙은 인간의 소원들을 특정짓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당의 문 앞에서도 정지되지 않고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도 그 자신의 견해와 그 자신의 행동이 요구되어 집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혹은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사들에 참여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적 기독교(Privat-christentum)" 혹은 "선택적 기독교(Auswahlchristentum)"²⁾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배와 설교는 더 이상 사적기독교인(Privatchrist)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신교 교인들의 3-10%만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의 복지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문화적 행사와 여가를 이용하는 행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자주 심리적으로 재치있고,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종교적인 요구들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것에서, 또는 개신교의 예배보다 더 많이 전달되는 체형에서부터—그들이 요구하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앞에 교회와 목사들은 어찌 할바를 모르고 대면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와 설교의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 이유들을 보게됩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그 전통적인 성격상 '강의식 모임'(Vortragsgottesdienst)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예배는 어느 정도 학교를 연상하게 합니다.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앉아서 경청을 합니다. 그들 중의 대부분은 지루함을 느끼고 이야기는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며, 생활과 연관되지 않으며, 가슴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들어올 때와 같이 그저 예배를 떠납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요?

2. Vgl. zulehner, 19: "In der gegenwertigen Gesellschaft dominiert auswahlchristliche Christlichkeit".

2) 이러한 상황은 예배와 설교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이 늦게서야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실천신학의 다른 영역들, 즉 종교 교육학과 목회(상담)학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이미 새로운 자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영역에서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업과 목회(상담)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른이를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수업의 상황이나, 목회(상담)의 파트너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신학적 사고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적 학문, 즉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지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에서 “경험적 전환(empirische Wende)”³⁾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학과 경험적 학문들이 서로서로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종교 교육과 목회(상담)학에서는, 이 일이 60-70년 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식학(예배학)과 설교학에서는 최근에 비로소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는 전통 속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배의 참석자들이 교실에 앉아있는 청소년들 보다 더 참울성이 많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자각은 설교학의 모든 영역에 미쳤는데, 원리적 설교학(prinzipielle Homiletik : 설교의 원리 문제), 자료적 설교학(materiale Homiletik : 설교의 원리 문제), 혹은 형식적 설교학(formale Homiletik : 설교 구성의 문제)⁴⁾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각은 언제나 전통과의 대결이며, 선조들과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와 20세기에 독일어를 사용한 중요한 두 신학자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변증법적 신학의 창설자이며, 대표자이고,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워지는 칼 바르트(Karl Barth)와 “19세기의 신교 교

3. Der Ausdruck stammt von Klaus Wegenst, Bern. Vgl. K. Wegenst, Die empirische Wende in der Religionspaedagogik, in : Zum Religionsunterricht morgen, Band I, Hrsg. W. G. Esser, Munchen 1970, 281 ff.

4. Die Differenzierung der Homiletik in prinzipielle, materiale und formale Homiletik stammt vom schweizerischen Vermittlungs-theologen des 19. Jahrhunderts Alexander Schweizer. Vgl. A. Schweizer, Homiletik, 112.

회교부”인 슬라이에르마허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와 그의 변증법적 신학)의 유산

—슬라이에르마허의 유산

—오늘의 설교와 예배의 갱신에 관한 필자의 생각

2. 칼 바르트의 유산 : 변증법적 신학에 있어서의 “본문연관 설교” (ca. 1920-1960)

이와 같은 그의 설교에 대한 숙고는 무엇보다도 “원리적 설교학”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계속하여지기를 그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의 형태’에 대한 그의 견해가 항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모든 세계를 위하여 단번에 말씀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와 선지자의 증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의 모든 것은 보다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의 주위를 회전하게 됩니다.

변증법적 신학의 기본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⁵⁾ 이 문장은 주리히의 종교개혁자 쾰링글리(Huldrych Zwingli)의 계승자인 불링거(Heinrich Bullinger)의 말인데, 1566년의 제 2 헬베틱 신앙고백(das II. Helvetische Bekenntnis)에 나타납니다. 칼 바르트와 그의 동료들은 이 문장을 반복하여 인용하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변증법적 신학을 특징지어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한 명의 목사로서 설교의 위기를 넘어서 신학의 갱신자가 된

5. Vgl. z. B. den fruhen Aufsatz von K. Barth, Menschenwort und Gotteswort in der Predigt, 1924, der in der Gesamtausgabe der Werke Barths Abt. III., zurich 1990, 426-457, abgedrucktist.

것입니다. 한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칼 바르트가 다룬 기본적 질문입니다.

이로부터 각 설교의 성경이나, 성경 본문과의 강한 연관이 “자료적 설교학”을 위해 추론됩니다. 변증법적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설교란 “Homilie”인데, 즉 성경의 본문에 (가끔은 단어에서 단어로) 따라 그것을 주해하는 설교입니다. 주제설교는 거절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정해진 성경본문의 자리에 인간적인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의 친구이며, 후에 바젤에서 실천신학 교수를 지낸 에드워드 트루나이젠(Eduard Thurneysen)은 ‘설교의 세계의 기본법칙’⁶⁾이라는 흥미로운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 글에서 “형식적 설교학”이라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설교를 위한 암시와 규칙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됩니다. 이 글 역시 변증법적 신학에서 전형적인 것과 같이 “원리적 설교학”의 기본문제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자료적 설교학”의 내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라틴어 단어인 prae-dicare가 보이듯이 성경의 메시지를 누구의 앞에서 말하는 것(Vor-sagen)이며, 성경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읽는 것(Ab-lesen)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인간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필자 자신도 30여년 전에 트루나이젠의 설교학 세미나에 학생으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가 언제나 반복하여 사용하던 말이 아직도 필자의 귀에 생생한데, 그것은 “당신은 펼쳐십시오, 설교에서 성경의 본문을 펼쳐나가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신학에서 “형식적 설교학”은 등한히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식적 설교학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갖는다는 강조하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설교에 큰 의미를 주도록 하였고, 목사는 설교가 그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교에 있어서의 적합한 언어의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바르트 자신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으며 혹은 철학적이거나 사적인 말을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다고 말합니다.⁷⁾ 또한 청중와의 관련성이나 혹은 상

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주변적인 문제로 밀려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련성이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의 설교를 읽거나 녹음된 몇몇 설교를 듣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의 완강한 “형식적 설교학”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어떻게 그의 청중에게 말을 시작했는지, 그가 얼마나 구체적이며, 회화적이며, 시간관적으로 말을 했는지, 그의 말이 얼마나 회화적 언어에 적합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는 결코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개념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직접적이고 영향력있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었고, 인상 깊은 설교자로서 나타났지만, “형식적 설교학”이나, 형식에 관한 문제는 그의 시대의 말기에 변증법적 신학을 대표하는 후기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로소 취급되었습니다.

변화한 60년대의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 학생들과 목사들은 변증법적 신학의 설교학적 사고에서 많은 충고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슈라이에르마허 (1768-1834)의 유산 : “예배연관 설교”

슈라이에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는 의심의 여지없이 19세기의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의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배와 설교의 문제와 관련된 그의 유산은 아직도 풍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가 후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불리워진 신학의 창설자였다는 것으로, 그의 신학은 칼 바르트, 에밀 브룬너 그리고 다른 변증법적인 신학의 대표자들과 날카롭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뛰어나고 영향력있는 면을 보았으나, 너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오로지 생각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었고,

Anrede geht, gelegentlich wohl am Platze sein. Ein Gegenstand besonderer Sorge sollte das aber auf keinen fall werden.” K. Barth, Die Menschlichkeit Gottes, in: Theo-logische Studien 48, zollikon 1956, 21.

6. Ed. Thurneysen, Die drei homiletischen Grundregeln, in: zwischen den Zeiten 11 (1933), 473-496

7. “Ein bisschen ‘nicht-religiose’ Strassen, Zeitungs, Lite-ratur-und, wenns hoch kommt, Philosophensprache mag also, wenn es um die

그것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슐라이에르마허는 매우 낭만적인 언어로 그의 신학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그가 그의 시대에 그의 언어로 오늘날 열려져있는 많은 설교학의 문제에 대해서 취급한 것을 놀라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필자는 여기서 예배와 설교에 관한 우리들의 질문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고려되는 몇가지 사실을 슐라이에르마허에게서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1) 슐라이에르마허는 그의 시야에 있어서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설득할만한 연관관계 속으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신학적인 면과 인간학적인 면을 같은 방식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설교학의 모든 부면들, 즉 원리적, 자료적, 형식적 설교학을 정당하게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2) 원리적 부면에서 그는 설교를 하나의 특수한 것 혹은 특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Kultus)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즉 예배는 가르침을 위한 모임이나, 미래의 행위를 위한 교육적인 무장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표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런 이유로 그것을 “묘사적 행위(darstellendes Handeln)”⁸⁾라고 부르고, 외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을 사람이 배운 어떤 가르침으로 보지 않고, 삶의 관련성 속에서 체험하는 어떤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배에서 이러한 경험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물론 제스처나 움직임 등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이것은 이루어 집니다. 물론 묘사적 행위로서의 예배는 그의 참여자들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데, 예배는 그들을 신뢰 속에서 강화시키고, 위로하며, 용기를 줍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예배를 “단절(Unterbrechung)”이라고 부름으로써 예배의 의미를 잘 묘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생활로부터의 단절이며, 또한 기독교적인 삶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사람들은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서로서로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설교란 이러한 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

8. Darstellendes Handeln ist “das Aeusserlichwerden des Innerlichen”. F. Schleiermacher, Die christliche Sitte, 526f.

해진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또한 설교도 교훈적 행위이거나, 교육적인 것을 지향하는 행위가 아니라, 묘사적인 행위입니다. 설교는 다른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의 생동하는 전체를 이루는데, 거기서 능동적인 행위가 한 번은 회중에, 그리고 다시 목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생동력 즉 자유로운 신앙의 순환⁹⁾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날카로운 구분은 지양됩니다.

3) 자료적 설교학의 경우에서도 슐라이에르마허는 자주 대립적인 것으로 (예를들면 변증법적 신학에서) 보여지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상황이며, 동시에 본문이라는 것입니다.¹⁰⁾ 교회적 삶과의 연관성으로부터 온 상황은 설교의 주제를 결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목사에 의해서 선택된 성경의 한 부분은 주제에 빛을 비추어 주며 또한 상황의 새로운 차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어떤 낱설은 것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관계되는 삶의 연관성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목사의 과제는 예술가처럼 말을 가지고 신앙 속에서 갖는 삶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를 그가 체험한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4) 형식적 설교학의 경우 슐라이에르마허는 설교자가 간직하며 유익할 많은 암시를 줍니다.

예배는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을 지향해야 하는데, 흡사 결혼, 전신례, 장례식 등과 같은 임시직무(Kasualien)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¹¹⁾ 그렇게 되어야만 예배에서 삶이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에르마허는 설교자는 소의 중두나 지방세금에 관해서도¹²⁾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설교는 전체 예배와 같이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협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청중이 내적으로 설교와 관련 맺어지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슐라이에르마허는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명한 것이 됨으로써, 청중이 어려움 없이 설교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설교를 읽는 것을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생동력있는 접촉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언어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설교는 신학

9. Vgl. F. Schleiermacher, Glaubenslehre ☆ 133, 1 (p309f).

10. “Der Text darf nicht verschwinden, weil er die ausserliche Gewährleistung für die Kirchlichkeit der Rede liefert”.

Vgl. F. Schleiermacher, Die praktische Theologie, 233.

11. Der Kultus ist möglichst kasuell “auszurichten”. Vgl. F. Schleiermacher, Die praktische Theologie, 153.

12. Vgl. F. Schleiermacher, Die praktische Theologie, 206.

적 논문이어서는 안됩니다.¹³⁾ 설교자는 그의 교인들과의 가까운 공동의 삶 속에서 설교의 언어를 찾아내야 하고, 그 언어를 획득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체험한 것을 표현함으로써만이 청중의 고유한 체험에 적합하게 흥미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슐라이에르마허의 설교학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는 그의 영향권에 있던 베르린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170년이 지난 우리의 우리들에게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은 그의 상황에 합당한 언어로 말했지만, 그의 설교들은 그가 이론가로서 가르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과 설교들은 예배와 설교에 관한 우리들의 열려진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오늘의 설교와 예배의 갱신

칼 바르트와 슐라이에르마허의 과거로부터 현재로 돌아와 이제 스위스와 서구 유럽의 개신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이미 앞에서 상황을 묘사하였고, 예배와 설교의 위기에 대한 몇가지 근거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단지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거나, 전통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위기의 근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필자는 다시 설교학의 세가지 분야를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원리적 설교학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에서 전체 예배가 행해야 하는 묘사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배록 17세기 이후 설교가 예배를 재배하였고, 기도과 찬송은 설교의 주위에서 작용을 하기는 했으나, 설교가 별개로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배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전체 교인들은 서로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상황 속에 있는 인간과, 그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귀를 앞당겨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분의 교인들의 삶은 다른 새로운

조건 아래서 진행되어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입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이를 위해서 "단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필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 아래에서의 상황의 연출은 일상의 삶을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술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의 짐이 단절되고, 상황의 자율성, 상황의 강요, 상황의 진부함, 전망이 없는 상황 등도 단절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상황이 예배에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과 삶과의 관련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단지 일상사가 신문에 게재되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혹은 정치에서 나타나는 듯이 반복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일상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빛 안에서, 복음의 빛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는데 예배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전망이 없었던 거시 희망을 얻고, 출구를 보게 됩니다. 단지 적응과 단념 만이 남아있어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짐을 벗음, 신뢰, 안도의 숨, 용기, 그리고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상황을 사랑과 용납의 새로운 빛 아래서 보게 됩니다.

(2) 자료적 설교학

이미 이야기 한 것으로부터 무엇이 예배의 내용인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처하는 상황의 현재화와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입니다. 상황은 예배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과의 관련성을 부여해 줍니다. 나의 삶은 중요하며, 나는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배에 삶의 영역과 넓이와 희망과 구원을 줍니다.

예배의 준비에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열린, 개인화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참석자들은 모두가 다른 상황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달려진 농경시대에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파종과 추수, 가뭄과 홍수, 번개와 햇빛이 가져오는 시절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목사가 악천 후의 주일예배에서 복음을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전달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관계 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상황이 있습니

13. Vgl. F. Schleiermacher, Die praktische Theologie, 242.

다. 전쟁과 같이 큰 위협, 모든 세계를 위협하는 재난과 인구폭발, 혹은 체무, 죽음, 죄와 같은 개인적이며 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예배의 상황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들과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관계되는 사람들의 그룹이 예배에서 다루어야 할 상황을 묘사하고 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서있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 자신의 경험들을 그 안에 태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형식적 설교학”을 위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몇가지 더 “자료적 설교학”과 관계되는 내용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기독교 신앙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묘사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의 증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성경에서 나온 한 말씀이나 하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야기의 묘사와 복음의 힘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변경시키며, 우리의 경직을 풀어줄 수 있을지를 보입니다.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몇가지 근본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를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말라” 이것은 갈 5:1의 말씀으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있던 갈라디아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의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을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기독교인에 속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다른 속박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것은 소유, 복지, 성장의 이데올로기, 소비 등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상황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만 합니다.

혹은 경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러한 갈 3:28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질서를 요약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빛을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교육의 제도나 국가의 질서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부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유럽이나 한국에서 남자가 향유하는 우선권을 생각할 때에 그러합니다.

혹은 평화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화를 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상설교에 나오는 축복은 유효합니다.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5:9) 이러한 빛은 우리들의 화평하지 않은 상황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군비를 확충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지혜로운 것이라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위스인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희생자를 생각하거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보다는 무기판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에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이 보여지고, 복음의 빛 안에서 그것이 논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하나의 대안을 보게되고, 새로운 힘을 감지하고, 강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완전한 신뢰로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복음은 나눌 수 없이 결합 됩니다. 상황이 없는 본문문의 설교는 생명력이 없으며, 복음이 없는 상황의 설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3) 형식적 설교학

이제 마지막 부분인 형식적 설교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배와 설교의 준비에 있어서 어떤 순서가 필요한가입니다. 이것은 아마 연습을 포함하여 한 학기의 세미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자는 여기서 상세한 근거의 설명없이 일곱개의 명제를 제시하는데, 목표는 언제나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생명력이 있어야하며, 회중을 도와야하며, 그들의 삶을 스스로 새롭게 보도록하고, 강하게 되어 예배를 떠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제들을 제시합니다.

a. 예배는 회중의 일이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능한 목사 혼자서 준비되고 구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그룹이 목사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구성한다면 다양성과 삶의 관련성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b. 모든 예배는 하나의 주제를 갖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상황이 예배에서 취급되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예배의 전형적인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결혼식이나, 장례 등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이 예배적으로 진행됩니다.

c. 모든 예배는 하나의 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가? 예배가 참석자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가? 예배가 그들을 일깨우고, 자극을 주는가? 물론 이 내적인 목표는 주어진 상황과 관련되어집니다. 목사와 준비그룹은 어떤 것이 이 예배의 목표이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합니

다.

d. 모든 예배는 복음의 빛이 인간의 상황에 비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빛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적 삶과의 단절이며, 일상사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복음의 빛은 예배에서 성경에서 나온 한 말씀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설교는 상황에 대한 복음의 투사력을 제시하고, 상황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과제를 갖습니다.

e. 예배는 전체로서 계획되어야 하고, 설교는 그 중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규정된 동일한 예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개혁교회의 특수한 전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찬송, 설교등을 예배의 내적목표와 주제에 맞추어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기원(Eingangsgebet)은 시편의 여러 종류 중에서 상황을 잘 묘사하는 것으로 비탄, 간구, 찬양, 감사 등을 골라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재의 기도(Fuerbitte) 역시 상황과 연관됩니다. 중재의 기도는 취하여진 상황속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재의 기도는 사회적이며, 사회윤리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f. 설교는 복음의 빛을 통한 상황의 비추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이 이야기에서 나누어 집니다. 혹은 이야기의 장소에 어떤 판토크임적인 묘사나 상징놀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g. 설교가 개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형태를 갖는 곳에서는, 이야기의 성격이 신중히 고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험적 학문(사회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사학, 언어학 등)에서 오는 지식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¹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갖는다. 설교의 순서(내용목차)는 명백하고, 분명하고, 조망가능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여러개의 색들이 선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천과도 같습니다.

설교의 언어는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을 것을 이야기 하지 못함을 미안히 생각하고 단지 독어와 유럽의 언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어에서 우리는 학문적 언어, 일상 언어, 그리고 시적 언어 등으로 나눕니다.

학문적 언어는 개념을 가지고 작용하며, 추상화를 통해서 보편타당성을 추구합니다. 학교나 신학의 연구소에서는 이 학문언어적인 개념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실상을 사람들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 Vgl. die Publikationen von Gert otto zur Thematik, z. B. G. Otto, predigt als Rede, 1976.

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어떤 내적인 영상을 구성해 준다거나, 소속된 자들에게 어떤 동일화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설교의 언어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학도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연습해온 학문적인 개념용어를 버리고, 설교를 위해서 일상언어나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언어나 시적 언어는 개인적인 의사소통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내적으로 보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언어는 자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영상적으로, 은유적으로¹⁵⁾ 표현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 하는데, 성경의 3분의 2이상이 이런 설명적 언어이거나, 시적 언어입니다. 일상적이고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소위 "나-멧세지(Ich-Botschaft)"를 줍니다. 영상과 은유와 나-멧세지는 언제나 능동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다른이를 의사소통으로 끌어들이며, 그들 안에서 영상과 경험을 깨워주며, 동일화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듣는 중에 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설교자는 이런 영향력 많은 언어를 언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언어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내가 이 문장을 천천히 말할 때 무엇을 나는 나의 내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가? 만약,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면, 나는 그 문장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청중에게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원리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적인 것까지 긴 논의를 하였습니다. 예배와 설교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암시까지도 논의해 보았습니다. 필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유럽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한국의 상황에서도 가능할지는 필자로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근대화된 한국의 발전은 우리 유럽과 마찬가지로 빠르고도 유사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자는 여러분들이 들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환상과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15. Vgl. Werner Jetter, Symbol und Ritual, 77ff.

참고서 목록

Barth, Karl, Menschenwort und Gotteswort in der christlichen Predigt, in: K. Barth, Gesamtausgabe Abt. III: Vorträge und kleinere Arbeiten 1922-1925, Zurich 1990, 426-457.

Barth, Karl, Homiletik, Wesen und Vorbereitung der Predigt, Zurich 1985.

Barth, Karl, Die Menschlichkeit Gottes, in: Theologische Studien 48, Zurich 1956, 3-27.

Jetter, Werner, Symbol und Ritual, Anthropologische Elemente im Gottesdienst, Gottingen 1986.

Otto, Gert, Predigt als Rede, Ueber die Wechselwirkungen von Homiletik und Rhetorik, Urban Taschenbucher Bd. 628, Berlin 1976.

Schleiermacher, Friedrich D. E.,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evangelischer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hrsg. von Martin Redeker, 2 Bände, Berlin 1960.

Schleiermacher, Friedrich D. E., Die christliche Sitt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hrsg. von L. Jonas, Berlin 1884.

Schleiermacher, Friedrich D. E., Die praktische Theologi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hrsg. von Jakob Frerichs, Berlin 1950.

Schweizer, Alexander, Homiletik, 1848

Thurneysen, Eduard, Die drei homiletischen Grundregeln, in: Zwischen den Zeiten 11 (1933), 473-496.

Wegenast, Klaus, Die empirische Wende in der Religionspädagogik, in: Zum Religionsunterricht morgen, Band I, hrsg. von Wolfgang G. Esser, München 1970, 28ff.

Zulehner, Paul Michael, Heirat, Geburt, Tod, Eine Pastoral zuden Lebenswenden, Wien 1982.

高麗神學報

제 22 집

등록: 1989년 5월 25일 제20-7호

1991. 12. 23 인쇄

1992. 1. 5 발행

발행인: 강 만 신

편집인: 강 인 영

발행처: 고려신학대학원 학우회 편집부

인쇄처: 제 일 인쇄

☎ 246-4511(代)

부산시 서구 암남동 33 ☎ 256-3181~2

편집위원: 기동연 이태홍 김성운

*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값 3,000원